

지역 소식통

김제장학재단 10주년 수기집 발간

재)김제사랑 장학재단이 설립 10주년 기념 수기집을 발간한다. 재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수기 27건, CD 디자인 31건, 슬로건 160건 등 총 218건을 접수받아 한국 미술협회 김제지부, 한국 문인협회 김제지부 등의 회원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한 바 있다.

조종현 장학재단 상임이사는 "수기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장학사업의 혜택을 통해 창조적인 인재로 거듭나게 된 학생들의 소중한 경험을 버릴 수 없다는 의견이 전달되어 수기집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8월 11일 지평선학당에서 김제사랑 장학재단 10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며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식, 후원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 초청자 리셉션 등이 진행되고, 특별히 후원자 명예의 전당에는 백만원 이상 후원자 936명의 이름을 현액하여 재단이 걸어온 10년간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실시

김제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8일 김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협조를 받아 김제시 관내 청소년들을 선발해 '체험하며 배우는 법'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체험은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쌓아가는 법교육 테마공원인 대전 슬로몬파크를 방문해 세계의 법역사관을 관람하고,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입법체험, 과학수사, 모의재판, 교도소체험 등 다양한 법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은 "이번 행사에 청소년에게 새로운 환경적응과 적성·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 제공으로 자신의 성장과 적성을 찾고 진로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민안전보험 효과 '톡톡'

군, 화재·자연재해사망 등 피해 입은 유가족에게 보험금 지급

완주군민들이 각종 재난 피해를 입은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주군이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화재, 자연재해사망 등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 보험지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화재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2명의 유가족에게 최고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지난달 일사병으로 사망한 유가족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완주군은 매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별도의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폭발, 화재,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등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지난 3월 가입 시에는 일사병, 열사병이 포함된 자연

재해사망을 추가해 가입했다. 타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군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완주=이종복 기자



로컬푸드 1번지 완주 농산물이 홍콩 수출 길에 오른다.

완주군 삼례 멜론, 홍콩 수출길 올라

올해 물량 멜론 5.6톤·양파 2톤 수출 예정

로컬푸드 1번지 완주 농산물이 홍콩 수출 길에 오른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홍콩 수출 물꼬를 텄고 있는 완주 삼례 멜론과 고산 양파를 올해도 수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물량은 멜론 5.6톤, 양파 2톤으로 현지에서 품질을 인정받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례 멜론은 해전리를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품질 사양도의 토양

과 일조량이 많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멜론보다 열매의 겉이 그물처럼 갈라지는 네트가 선명하고 당도가 높은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삼례멜론 공선회가 조직돼 삼례농협에서 비파괴선별기를 통해 엄격히 선별된 멜론만을 수출해 맛과 품질이 예년보다 향상될 전망이다. 삼례멜론 공선회에서 재배하는 멜론의 면적은 3ha정도로 올해는 230톤 정도를 생산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이번에 수출되는 농산물을 활용해 농산물 수입 판매 업체인 쉬프그롭과 함께홍콩의 대형 유통 매장인 파킨샵에서 현장 판촉활동을 벌여 완주 농산물의 수출품목과 수출량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수출로 국내 가격안정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우리 농특산물이 수출 될 수 있도록 홍콩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해 완주군 농산물의 해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아토피 일일캠프 실시

김제시보건소는 아토피·천식 안심 기관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8일 치유숲에서 8일 아토피 일일캠프를 실시했다.

아토피·천식 예방을 위해 추진된 이번 캠프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울

타고, 조기진단과 치료, 꾸준한 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와 자연 친화적인 생활속에서 아토피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제=곽노태 기자

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친환경 생태체험으로 건강 증진과 자가 면역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아토피피부염과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은 생활습관의 서구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증가하고 점차 만성화되고



착한가게 마음든든 3호점 탄생

김제시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삼영정화조 찾아 현판 전달

김제시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김태한, 민간위원장 박경준)는 8일 삼영정화조를 찾아가 착한가게(마음든든 3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삼영정화조(대표 배도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랑의 쌀과 연탄 후원 및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몸소 실천 해왔다.

배도현 대표는 "교월동 협의체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역복지를 위해 착한가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고 나눔 문화에 동참하고 싶어 가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교월동 주민들을 위해 작지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한 교월동장은 "삼영정화조는 평소 지역주민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왔으며 오늘도 이렇게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더 도움이 되어주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협의체가 착한가게를 지속적으로 홍보, 발굴해 더 많은 착한가게가 교월동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월동은 박건우세프의 황제스테이크잡비(마음든든 1호점), 대촌주유소(마음든든 2호점)에 이어 삼영정화조(마음든든 3호점)가 착한가게에 동참하여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게 되며 모인 성금은 교월동 관내 저소득층의 생계비·의료비 지원과 지역특화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고추 탄저병 발생 사전 당부

김제시농업기술센터가 최근까지 지속된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한 날씨 등으로 고추의 탄저병 발생이 심해지고 있어 철저한 사전 방제를 당부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의 경우 전년과 같은 기간 기후조건을 비교해 봤을 때 비가 많아서 탄저병 발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탄저병은 기온이 25~28°C이면서, 습도가 높을 때 주로 발병해 장마기 이후 감염이 급증하며, 비가 강하게 내릴 때 땅속에 있던 탄저균이 튀어 올라 열매에 붙기 때문에 빗물에 의해 다른 열매로 확산하는 만큼 초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탄저병에 걸린 고추가 확인되면 발견 즉시 소각하거나 다른 장

소에 묻어야 한다. 왜냐하면 병든 열매를 그냥 두거나 이랑사이에 버리면 방제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방생 초기에 살균제를 10일 간격 3회 이상 뿌려주되, 비가 오기 전후로 약제를 뿌리면 효과가 더욱 좋다. 특히 지난해 탄저병이 발생했던 농가는 물 빠짐이 잘되도록 배수로를 잘 점검해야 한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정식 이후 가뭄으로 인해 생육이 부진하던 고추가 최근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탄저병에 노출되어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추 재배농가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군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마산업과  
 063-430-2951